

Part 2 신부의 신비 : 영광과 연합 (엡 5:25-32) (The Mystery of the Bride : Glory and Union)

I. 소개

25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6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28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29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30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31 이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엡 5:25-32)

- A. 이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 가장 주목할 만하며, 중요한 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추천하기는, 이 구절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당신의 이름으로 바꿔봄으로 이 말씀이 당신 자신을 향한 말씀이 되기를 바란다. 이 미래에 대해 당신의 모습을 그려보라. 그리고 이 구절에서 기록된 당신의 부르심(destiny)의 여러 측면들로 인해 감사하며, 당신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이 진리들을 말하기를 시작해보라. 이 구절은 당신의 영광과 가치를 궁극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
- B. 문맥상으로 바울은 남편들에게 그들의 아내를 사랑할 것을 가르치고 있고, 그가 주요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다. 내가(마이크 비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남편의 의무가 아닌, 신랑이며 하나님 이신 예수님의 그분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사이의 연합이 결혼에 대한 시각을 제공해주듯, 남편과 아내 사이의 연합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연합에 대한 시각을 제공해준다.
- C.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영광(26-27절)과 그분의 교회와의 연합(28-32절)의 측면에서 묘사했다. 예수님께서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자신과 자신의 신부와의 관계를 설명하셨다(요 17:21-26).
1. **영광** :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 하신 일과 이것의 이유(엡 5:26-27)는 교회가 예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가지는 영광과 위대함, 지위와 신분, 역할을 알 수 있도록 해준다.
 2. **연합** : 교회는 예수님과의 깊은 연합을 향한 부르심이 있다(엡 5:28-32). 이는 우리의 구원의 관계적 측면을 나타내준다.
- D.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남편이 아내를 향해 부여주어야 하는 사랑의 모델이다. 어떤 이가 그리스도를 닮은 정도는, 그가 자신의 배우자를 대하는 것에서 나타난다. 이것의 모델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배우자인 교회를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나타나 있다. 어떤 이가 내게 말하기를, 자신의 아내는 그녀가 한 일들로 인해 자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그는 자신의 아내의 모든 실패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Part 2 신부의 신비 - 영광과 연합

- E. 어떤 남편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아내를 사랑하기를 구하지 않고서는,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칭함 받을 수 없다. 이 말씀을 삶으로 끌어안지 않고서는 이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 F. 매일, 남편은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아내를 향한 나의 사랑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가?” 모든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그의 아내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남편은 저를 너무도 철저히 사랑해주고, 제가 남편의 리더십에 열정적으로 따르고 순종할 수 있을 만큼 너무도 좋은 사람이에요.”

II. 영광 :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하신 일과 그 이유 (엡 5:26-27)

25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6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엡 5:25-27)

- A. 바울은 우리가 받은 위대한 사랑과 특권에 대해 강조한다. 그는 신부의 영광과, 위대함과, 지위와, 신분과, 역할에 설명한다. 이 구절은 우리의 가치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갈망을 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분은 당신을 그분의 영원한 동반자로서 원하신다. 당신은 그분 앞에 아름다운 자입니다.
- B. **자신을 주심같이** :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취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값은 치루시고 사셔야만 했다(엡 1:7; 2:15; 5:2).
- C. **영광스러운 교회** : 우리는 영원히 영광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분은 당신을 매우 영광스러운 곳으로 이끌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성공한 자가 될 것에 대해 부르심을 받았다. 당신의 삶에서의 모든 일들은 이 목적을 향해 역사하게 된다. 그분은 영광과 사랑을 훼손하는 모든 것들을 없애실 것이다.

22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 24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요 17:22-24)

- D. **거룩하게 하시고** :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구별하셔서 그분 자신과 그분의 섬김과 마음으로 이끄셨다. 이는 하나님께 대해 매우 특별한 신부를 말하며, 다른 어떤 창조물보다 최고로 높임을 받으며 유일한 위치로 부름 받았음을 나타낸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 (벧전 2:9)

- E. **깨끗하게 하사** :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죄의 권능과 죄로 인한 형벌로부터 깨끗케 하셨다. 우리의 범죄함과 부끄러움은 우리가 거둬나게 됨으로 모두 제해졌다. 그분은 우리가 가진 어두운 생각과 감정, 행동의 영향력으로부터 점진적으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자유케 될 것이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그분과 가지는 관계와 이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 F. **물로 씻어 말씀으로** (한글 KJV :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끗케 하시는데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과 성령님은 항상 함께 움직이신다. 여기서의 말씀은 성경 말씀 전체와 에베소 사람들에게 가르친 위대한 교리들을 말한다.
- G. **자기 앞에 ... 세우사** : 하나님의 계획의 정점에 있는 것은, 그분의 백성들을 혼인 잔치 때에 영광 가운데 세우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신부를 향해 가지고 있는 계획은 신부가 그녀 자신을 향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혼인 잔치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계신다. 그분은 준비되어 계시며, 이제 그분의 신부가 준비되어 있기를 원하신다.
- H. 신랑을 위해 신부를 준비시키는 것은 다른 이가 맡는데, 보통 아버지 또는 가까운 친척이 그녀의 준비를 돕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 신부가 준비되는 부분에 대해 주목한다. 요한은 이를 신부의 관점에서 바라본다(계 19:7). 다른 저자들은 기름부음 받은 사역의 역할을 주목한다(마 9:15; 요 3:29; 고후 11:2).
- I.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신부를 그분 자신 앞에 세우시는데, 다른 어떤 누구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 그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필요한 모든 일들을 마치셨다. 우리는 예수님의 깊은 도우심 없이는 어떤 일도 성취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 사람은 예수님뿐이며,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시는 과정을 아는 이도 예수님뿐이다.

III. 영광스런 교회 : 티나 주름잡힌 것 없이

- A.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그날까지 준비시키시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생각해주셨다. 에스더가 자신의 결혼식을 위해 아름다움을 예비했듯이(에 2장), 교회는 자신이 준비되는데 있어서 그분의 리더십과 발맞춰나가야 한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엡 5:27)

- B. **거룩하고** : 거룩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해준다. 거룩으로의 부르심은 하나님께 대한 동의함으로 살아갈 것으로의 부르심이며, 예수님에 대한 계시로 매혹되는 것의 즐거움을 즐기며 살 것에 대한 부르심이다.
- C. **티나 ... 없이** :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하늘에서 입게 될 의복을 위해 모든 티와 얼룩들을 제하실 것이다. 오늘날, 교회는 진흙탕 가운데 더러워져 있기도 한다. 혼인날에, 신부는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의복을 입고 있게 될 것이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계 19:8)

Part 2 신부의 신비 - 영광과 연합

- D. **주름잡힌 것 ... 없이** :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 가운데 두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젊음과 건강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 E. **흠이 없게** :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육신적인 흠을 제하실 것이다. 이는 구약의 희생 제사 시스템에서 친숙하게 쓰이던 말이었다. 아무런 흠이 없는 동물만이 주 앞에 드러졌다(레 1:10; 3:1,6; 4:32; 14:10; 22:19). 아무런 흠이 없다는 것은, 아무런 결점도 없이 완벽한 아름다움을 소유하게 됨을 말한다. 우리의 용모와 능력은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IV. 연합 :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신비스런 연합 (엡 5:28-32)

- A.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사이에는 영과 마음과 몸의 신비스런 연합이 존재한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가지는 관계적인 측면을 드러내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갈망을 표현하고 있다.
- B.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교회에 대해 깊이 관여하신다(엡 5:29). 양육하고 보호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신부에게 필요한 것들을 애정을 담아 공급하시며 돌보시는 것을 말한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엡 5:29)

- C. (교회를) **양육하며** : 그분은 우리를 육신적으로, 감성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공급하신다. 우리는 자신의 몸에 대해 천성적으로 주의가 깊으며 예민하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실제적 필요들에 대해 우리보다 더욱 민감하시다.
- D. (교회를) **보호하기를**(표준새번역 : 돌보시는) : 이는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따뜻하고 부드러운 관심을 말한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정하며 부드러운 관심을 보이심을 알도록 해준다(살전 2:7).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살전 2:7)

- E.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백성을 충성되게 먹이며 부드러운 관심을 보이실 사역들을 일으키고 계신다(엡 4:11-13).

V. 위대한 비밀 (엡 5:30-32)

30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한글 KJV :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31 이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엡 5:30-32)

- A. **이 비밀이 크도다** : 이 구절은 성경에서 정점을 이루는 부분 중 하나이다. 이는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신비스런 연합에 대한 영광스런 교리이다. 우리는 예수님께 대해 영과 마음, 육신적으로 연합되어 있다(요 17:23; 고전 6:17).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해 조심스럽게 기도 가운데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비

Part 2 신부의 신비 - 영광과 연합

라고 불리는 이 부분은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우리는 평범한 몇 가지 사실만으로 이 신비에 대해 축소해서는 안되며, 너무 자세한 부분까지 정의하려고 노력한 나머지 신비의 영역을 잘못 덮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진리는 우리로부터 부분적으로 감춰지도록 하는 목적이 있으며, 그럼에도 이는 우리를 경이로움으로 가득 채운다.

- B. 이 구절에서 바울은 창세기 2:21-24절의 말씀을 해석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이브를 만드실 때 예수님과 교회의 연합이 함께 그려졌다는 부분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깊은 잠에 빠지게 해서 갈빗대를 취하여 그의 신부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잠을 끌어안도록 하심으로 그분의 신부가 태어나도록 하셨다.

21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24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 2:21-24)

- C. 바울은 더하기를,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30절)라고 말한다. 이브는 아담의 육신과 뼈, 그의 본질로부터 만들어졌다. 한 몸이라는 표현이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에 적용되었듯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어떤 측면에서 아담과 이브는 둘이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그들은 하나였다.
- D. 아담의 목적 중에는 이브가 창조되기 전까지는 나타나지 않던 부분이 있었다. 이미 바울은 앞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을 드러내는 그분의 몸임을 증거했으며(엡 1:23), 여기서 바울은 이 진리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 이브가 아담의 충만함을 나타내듯이, 교회도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존재이다. 우리는 그분의 마음과, 몸과, 영원한 목적에 대해 연합되어 있는 존재이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엡 1:23)

- E.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서는 그 자신으로 완전하시며 온전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그래 오셨다. 그 분 안에서, 신성의 충만함이 육신 안에 거하게 되셨다(골 2:9). 그분은 항상 하나님과 동격인 분이셨으며, 또한 동일한 영원함을 지니신 분이셨다. 그분 안에는 어떤 결핍이나 부족함도 없다. 그러나 이 땅의 중보자로서(human mediator), 예수님께서서는 교회가 그분의 영광과 목적을 충만하고 온전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 F.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의 목적과 영광을 (예수님께 연합한) 인간을 통해 온 땅에 드러내시는(합 2:14) 위대한 목적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즉, 이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드러낸다(마 6:10). 이 땅의 중보자로서, 그분께 한 몸으로 연합한 그분의 신부를 통해서만 인간을 통해 온 땅을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는 그분의 목적이 완전하고 충만하게 성취될 것이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자세히 알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짜내지는 말아야 한다. 우리가 이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위대한 신비이다.

